

37. 2300 주야의 시작점을 확인함

2012. 9. 9.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2300주야까지라고 한 날짜에 대하여 공부하는 중에 그 시작하는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찾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벧전1:10~12]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70이레와 2300주야의 시작한 때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다가 시간관계로 오늘로 미루었는데, 아마도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은 때나, 또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때를 시작점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올라가면 그 시작한 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기간이 69이레이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답: 예, 목사님이 지난 시간 끝에 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기억하는 중에 오늘 나눌 이야기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기름부음을 받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사도행전 10:38절을 읽어보지요. 목사님이 읽으시겠습니까?

[행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감사합니다. 기름 붓는 다는 것이 성령과 능력을 주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신 사실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결코 떠난 일이 없습니다. 사도요한은 이것을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요1:32)고 기록하였는데 “머물렀더라”는 말이 한 번 임하여 머물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이 30세쯤 되신 때인데(눅3:23) 서기로 말하면 기원전2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을 하여 69이레가 되는 때가 기원전 몇 년인가를 찾는 것이지요.

2. 목사님, 69이레라고 해봐야 483일인데, 일년 조금 넘는 기간이 아닙니까. 일 년이 365일이니까, 483일은 1년하고 118일 즉 1년 3개월 정도인데, 그것이 어떻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기원전 457년에 이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지요.

답: 아주 좋은 지적을 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았군요. 그것은 성경에 예언한 예언적 1일은 역사적 시간으로는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 읽어봅시다. 겔4:6입니다.

[겔4: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일 일이 일 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표상하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40일을 우편으로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은 실제로는 40년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일일을 일년으로 계산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표상적 예언으로 490일은 실제로는 490년이고 2300주야는 2300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원 27년부터 거슬러 69이레, 즉 483일, 483년을 올라가면 정확하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인 기원전 457년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다니엘9장의 70이레는 메시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이 계산에 의하여 표상적 예언상 1일은 실제로는 1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성경의 지침이 확실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 참 묘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들은 왜 그 해석이 옳지 않다고 합니까?

답: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회를 계시록 17장에 예언된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해석이 확산되어갈 때에 로마교는 상당히 곤혹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총명한 두 명의 신부에게 그런 해석들을 대항할 수 있는 해석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알카자르 신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리베라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알카자르 신부는 과거적 해석법으로 예언서를 해석하여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이 제국로마의 기독교 핍박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인데 종교개혁 때에는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을 하였고, 리베라 신부는 미래적 해석법을 적용하여 계시록의 예언들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했기 때문에 개혁당시에는 아직도 미래의 일이라고 해석했지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해석이 개신교에 도입이 되면서 어떤 부분은 과거적 해석법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미래적 해석법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하는 사람의 취향을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더군요. 그런 해석 중에 다니엘서는 특히 과거적 해석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작은 뿔을 셀루쿠스 왕조의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하지요. 이것은 지난 8월 12일 33회 강론 때 잠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300 주야가 안티오쿠스의 집권기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지요. 이런 해석들이 영향을 주어서 신학적 전통에 의하여 그런 해석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법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300주야를 6년 좀 넘는 기간으로 하는데 전혀 정확하게 2300일에 맞아떨어지는 해석이 안 되지요. 대강 그렇다고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 예언이 그렇게 어정쩡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주 똑 부러지게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일일 이년 원칙에 의하여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를 기점으로 거슬러 계산하면 정확한 연대를 알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예언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4. 어떤 사람들은 일일 일년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답: 예, 그런 주장을 저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예언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없다. 어렵고 모르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겸손한 자세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말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깨달을 것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마24:15절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면 깨들을 것이라고 보증하셨는데요. 그들은 노아 때의 120년이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간 70년을 말하면서 그것도 1일 1년으로 해석하느냐고 역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예언들은 표상적 연대 예언이 아니고 역사적 연대 예언이기 때문에 1일 1년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요.

그리고 일일 일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기름부음을 받는 때로부터 69줄일, 즉 483년을 거슬러 계산하면 아까 말한 대로 1년 3개월 남짓한데, 그때는 예언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아무런 역사적 사건도 없었습니다. 거꾸로 기원전 538년이나 다리오 때인 520년에서 시작하여 1년 3개월을 지나가도 여전히 페르시아 시대이지 메시아가 기름부음을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되면 이 예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건 이미 말한 대로 허물이 마리고 죄가 끝나고 죄안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부음을 받는 사건이 이 70이레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고난 받을 때와 그 후에 영광을 받을 때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9장의 70이레를 빼면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고난 받고 영광 받을 것에 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가 예언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명확하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들으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제 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5.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70이레에 대하여 설명하시지요.

답: 감사합니다. 베드로전1:10~12에 의하여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와 시에 대한 예언이 오직 다니엘 9장의 70이레 예언 외에 없는 것을 확인하면 70이레의 시작, 곧 2300주야의 시작이 아닥사스다 7년인 기원전 457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필역했다고 에스라 6장15절에 기록했는데, 14절에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필역했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아닥사스다는 다리오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조서를 내린 때는 다리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완전히 짓고도 63년이 지난 후입니다. 언제나

에스라6:14이 문제입니다. 다리오 때에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63년 후에 어떻게 성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리겠느냐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에스라 7장에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성전 중건하라는 명령이 명문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7장에 나오는 그 사람 맞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왕인가?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데 에스라6:14의 왕의 이름의 차례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로 나왔고, 그들의 조서를 좇아 성전을 필역하였는데, 다리오 6년에 했다고 했으니 성경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토론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개신교 목사님이 왜 하나님 이름이 아닥사스다 이름은 적어서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지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 그만큼 이 구절에 아닥사스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대하면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6. 목사님은 이 문제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렇고말고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는 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신앙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바울도 믿는 고로 말한다고 했지요.(고후4:13) 이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 즉 왕의 명령서는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을 따라 필요한 내용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겠지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면 에스라 1:2~4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지요.

[스1:2~4]스1: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잘 도와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서 내용 전문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봅시다. 스3:7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입니다. 1장에 기록된 조서에는 없는 내용이지요. 조서에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에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홀로 건축하라고 명했다고 했지요. 이것도 조서 내용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분명한 근거를 제시했을 것이니까요. 또 6:3~5을 봅시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육십 규빗으로, 광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4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돌지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도 1장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레스 원년에 내린 조서에 있는 말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는 전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요. 아닥사스다 때는 다리오 왕 때에 필역한 성전을 잘 돌보지 않아서 다시 손을 봐야 할 정도로 성전이 퇴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 7장 조서에 기록하지 않고 다만 스7:23~28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징배하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27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8:36을 보면 왕의 조서에 성전 재건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으시겠어요.

[스8: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서편 총독들에게 부치매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이 말씀에 강 서편 즉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뜻하는 말인데, 그쪽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왕의 명령을 잘 시행하도록 행정조치와 물건을 잘 공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문장을 요즘 번역한 성경들은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몇 성경을 읽어보지요. 먼저, 공동번역을 읽어보지요.

[스8:36] 황제의 칙서를 받은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지방장관들과 총독들은 백성을 도와 하느님의 성전 짓는 일을 거들었다.

다음은 새번역입니다.

[스8:36]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다음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스8:36] 그런 다음 그들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황제의 명령이 적힌 편지를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 협조하였다.

다음은 쉬운 성경입니다.

[스8:36] 그들은 왕의 명령을 왕의 신하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바른 성경입니다.

[스8:36] 그들이 王의 칙령을 王의 행정관들과 江 건너 便의 總督들에게 傳해 주니, 그들이 百姓들과 하나님의 殿을 再建하는 일에 협조하였다.

성경이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성전 재건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7. 목사님, 성경을 다 살펴보셨네요. (당연하지요.) 이런 번역들을 보니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는 이런 사실을 6:14,15에 명기하지 않고 다만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성전을 건축하며 필역했다고 쓰고 그것도 다리오 6년에 필역한 것만 기록했을까요?

답: 우리는 에스라가 어느 왕 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아닥사스다의 조서 내용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다리오 때에도 성전 재건을 필역한 일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재건한다. 그리고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아닥사스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서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에스라 6:14을 읽어봅시다.

[스6:14]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필역하되.

조서가 원어로 타암이라는 말인데 세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 복수를 써야 할 것인데 단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라고 했는데 이 “명령”이라는 말이 타암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왕이 조서를 내렸든지 그 명령은 하나님의 한 명령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에스라는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나 그들이 조서를 내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조서는 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57년을 70이레와 2300 주야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 해석이지요.

또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을 중건하라는 말보다 범위가 훨씬 넓지요. 이것은 유대 나라의 수도를 복구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읍을 재건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즉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분명히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스7:24~2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징배하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분명히 자치권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 명령은 성전 중건 성읍 중건 자치권 부여가 다 이루어진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린 아닥사스다 7년 곧 기원전 457년이 확실합니다. 그때부터 7 이레, 곧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재건되고 그 다음 62 이레 곧 43년 후인 기원 27년에 예수께서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활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속 사업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성경의 약속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들도 어려운 것은 기억 못해도 예언이 것처럼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을 증진하기 바랍니다.

8.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끝내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언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그 예언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따라 메시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